

남원의 보석같은 ‘숨은 명소’를 아시나요



전북 7대 비경 중 하나인 서도역에서 인생샷 포인트로 꼽히는 철길 가로수. 서도역은 남원 북쪽의 작은 폐역인데 1932년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역이다. 문화공간과 사진촬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남원 | 김재범 기자

남원이라면 우리는 먼저 춘향부터 떠올린다. 많은 문학작품 무대 중에 이처럼 주인공과 밀착되어 오래도록 사랑받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관광지 남원에게 ‘춘향’은 이제 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리산 자락을 품에 안은 천혜의 경관을 가졌고, 요즘 감성에 맞는 ‘인스타그램머블’한 장소도 곳곳에 있는데 남원 여행객의 머리에는 여전히 광한루, 오작교가 1순위다. 그래서 이번 남원여행길은 그 ‘1순위’ 명소들을 뒤로 돌리고 새로운 매력의 곳들을 찾아갔다.

●지리산 와운마을 천연기념물 ‘천년송’

먼저 간 곳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는 와운마을의 천년송이다. 천연기념물 424호인 천년송은 수령이 500여년으로 추정되는 높이 20m의 소나무다. 정확한는 할매(할머니)송과 한아씨(할아버지)송이 함께 있다. 이중 더 크고 오래된 할매송을 ‘천년송’이라고 부르며 당산제를 지낸다.

천년송이 있는 와운마을에 가려면 남원에서 차로 오롯이 1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시원한 물소리의 뱀사골 계곡을 굽이굽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깊은 숲 속에 살며시 숨은 와운마을이 나타난다. ‘구름도 누워서 간다’는 마을 이름처럼 유유자적한 분위기가 참 멋진 동네다.

와운마을에서 내려와 주천면쪽으로 가면 정령치가 나온다. 높이 1172m의 지리산국립공원 고개이다. 지리산에서 차로 넘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갯길이다. 정상 휴게소에는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날씨 운만 좋으면 배재봉부터 천왕봉, 세석평전, 반야봉 등 지리산 주능선 1백리와 남원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운봉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은 남원여행의 또 다른

‘구름도 누워 가는’ 지리산 깊은 곳 와운마을 높이 20m 천연기념물 소나무 ‘천년송’ 장관 김병중미술관·아담수목원·서도역 ‘사진 맛집’ 4대 누각이자 춘향이 숨겨진 ‘광한루’ 매력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장소로 남원 여행의 ‘머스트 비짓’ 명소로 꼽히는 광한루의 야경. 연못 수면위에 비치는 누각의 반영이 인상적이다. 남원 | 김재범 기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작은 시골마을 숲에서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숲파크닉을 체험할 수 있다. 숲 크기는 아담하지만 제법 굵게 자란 나무들 사이에 자리를 펴고 누워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한없이 맘이 편안해진다.

●사진 잘 나오는 인스타그램머블 명소들

남원 여행에서 SNS에 올릴 인생샷도 건지고, 차한

잔의 여유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힐링도 느끼고 싶다면 김병중미술관과 아담수목원이 좋다. 김병중미술관은 남원 출신 김병중 화가의 40년 예술세계를 기증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는 곳이다. 규모가 큰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관 건물이 독특하고, 안에 예쁜 카페가 있어 한 나절을 보낼 만하다.

아담수목원은 옛 수목농원을 10여 년간 가꾸어 멋진 정원으로 탈바꿈한 남원18경의 한 곳이다. 이곳에선 구불구불 이어진 산책로를 거닐며 가을빛이 서서히 다가오는 정원을 사진에 담거나, 은은한 음악이 들리는 실내에서 소파에 몸을 깊게 묻고 큰 통창 너머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인상적인 작품을 갖춘 갤러리도 있다.

서도(書道)역은 남원 북쪽 작은 폐역이다. ‘책의 길’이란 이름은 인근에 있던 노봉서원에서 유래했다. 1932년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역이다. 전라선 역이었지만 지금은 교통의 거점 대신 문화공간과 사진촬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전북 7대 비경 중 하나로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의 주무대이고, 드라마 ‘미스터신사인’, 영화 ‘간이역’ 등을 이곳에서 찍었다.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광한루’

비록 이번 여행길에서 뒤탔위로 미루긴 했지만, 그레도 남원에 와서 춘향과 관련된 명소를 찾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광한루는 평양의 부벽루, 진주 축서루, 밀양 영남루와 더불어 4대 누각 중 하나로 불린다. 요즘은 야간 경관조명을 잘 갖추어 밤에 찾아가면 연못에 비치는 누각들의 고운 반영이 낮과는 사뭇 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남원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버랜드·롯데월드 오늘부터 할러윈 축제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면 테마파크의 할러윈 축제 시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올해 용인 에버랜드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할러윈 축제를 실시한다. 우선 1만㎡의 포시즌즈 가든이 호박 조형물과 가을꽃 가득한 할러윈 가든으로 변신한다. 특별공연으로는 ‘할러윈 위키드 퍼레이드’와 ‘달콤살벌 트릭오어트릭’ 거리 공연이 낮에 열린다. CJ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풀 인 가든 콘서트’도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진행된다.

호러 마니아들에게 인기 높은 블러드시터는 8일 오픈한다. 올해는 ‘오징어게임’의 채경선 미술감독이 참여해 디스토피아적인 기차역 모습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제작했다. 특별무대에서는 좀비와 인간의 사투를 다룬 ‘크레이지 좀비헌트’ 공연이 열린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호러 할로윈:The Expansion’이란 제목으로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는 호러 공간을 기존 매직 아일랜드에서 실내 가든 스테이지 인근 스페인해적선과 회전 바구니까지 확장했다. 매직아일랜드를 점령한 좀비군단이 어드벤처를 지키는 감찰부대와 맞붙는 ‘좀비어택’과 ‘동체구역 A’ 공연은 13일부터 실내 어드벤처에서 열린다. 실내 어드벤처 드림캐슬 포토존과 만남의 광장 빅토리 포토존에서는 유령 캐릭터들과 호박, 캔디 등의 소품을 통해 할러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매일 두 차례 ‘로티스 할러윈 파티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가든스테이지의 ‘드라큐라의 사랑’, 만남의 광장의 ‘장난꾸러기 잭 오 랜턴’ 등 새 공연도 선보인다.

김재범 기자

서울관광재단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 오픈

서울관광재단은 서울도심등산관광센터를 1일 정식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위치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등산관광 안내, 대여 등산용품, 샤워실 및 탈의실, 짐 보관 서비스, 포토존,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집트,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 해외 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에 이어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북한산 산책과 외국인 등산객 대상의 ‘2022m 등산 챌린지’ 발대식도 진행했다.

대한항공, 부다페스트 취항·동남아 운항 재개

대한항공이 10월 3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269석 규모의 보잉 787-9를 투입해 10월 28일까지 주 1회 운항한다. 이후 29일부터 주 2회로 운항편수를 늘릴 예정이다. 2020년 3월 이후 운항을 중단했던 중동, 동남아 지역의 주요 노선도 잇달아 재개한다. 10월 1일부터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동남아 대표 허니문 여행지로 손꼽히는 태국 푸켓도 10월 1일부터 주 4회로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치앙마이 노선도 10월 1일부터 주 4회 운항할 예정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2일(금) 음력: 8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부나 조연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병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까지 이르러질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성실성과 근면성이 부족하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은 완성시킨다. 오늘은 매사에 급히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문서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손실이나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귀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된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매사 꼼꼼히 살펴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망신에 관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오늘은 최고가 되기 위한 출발을 하는 날이다.	최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인간함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오늘은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0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